

건축문화 **사라상**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건축  
 문화사라상'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구독 가능합니다.



## 광주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초청 공모전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광주시민회관 재조성사업 공모전 당선작

김아연+김광수작

## Green Concert



### 시론 02

두꺼비 집과 '행이부리밭' 공동체 \_ 류영국

### 작품소개 03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 기획 04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초청공모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제

###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_5부 - 리포카라워치, 미션베 이호 \_도영준

###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07

보헤미아의 진주, '체스키 크로룸프' \_ 조용준

### 설계경기 08

전남대학교 아동병원

### 사람 & issue 09

만원의 책임감을 가진 건축사 \_ 김광수

# 두꺼비집과 ‘괘이부리말’ 공동체



류영국 대표  
지오시티(주) 건축박사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동네의 부활이다. 공동의 기억과 체현에 기초한 공감어린 생생한 이야기가 늘 흘러 다니고, 불필요한 신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오래된 생활공동체인 것이다.

도시재개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경제학적으로는 외부경제의 효과(external economy)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된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주택가에서 내 집만 수리하게 되면 옆집지역에 노후된 주택 때문에 투자대비 토지의 건축물의 가치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노후주택들은 옆집이 고쳐 지으면서 동네의 부족한 주차장도 만들고 비좁은 도로도 확장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투자를 미루게 된다. 그 결과 노후주택들은 집단화 되고 규모화 되어 대규모 단지나 지구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생기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의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재개발은 거대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도시재개발은 내대지나 농경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동의절차와 건축물과 지장물의 철거, 거주자들의 이주, 그리고 기존 도시시설과 유기적인 연결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 도시재개발수법의 혁명적인 변화 필요

투자자는 리스크를 용적율로 대표되는 토지이용강도(LUI, Land Use Intensity)를 높임으로써 보상 받으려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들은 노후하고 쇠락한 재개발지구의 주거환경을 벗어나 쾌적한 신축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고 있다. 재개발 지구내 실거주자들은 노약자들이거나 주거비나 임대비를 적게 내고 일터 가까이 살면서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한 도시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제도와 도시생리 속에서도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지구 사람들이 개발 후에도 그 동네에 다시 사는 비율인 재정착율(再定着率)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재개발수법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어야 어찌 가능한 일일 것인가? 대형건설사로 대표되는 개발주체가 거주자 중심의 개미자본으로 변경되고, 개발이익이 아닌 사회공사의 실현으로 접근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재개발을 물리적인 환경만 개선하는 기존의 재개발과 차별화하기 위해 우리는 도시재생(都市再生)이라 부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복원인 사회적 재개발과 생활공동체의 재정립을 통한 경제적 부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을 가리킨다. 여기에 더 나아가 지역을 문화나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도시개발에 인문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두꺼비집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집을 두꺼비에게 주지 않고 계속 살겠다는 것이다. 기

존 주택을 허물지 않고 개량하고 보수하여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실 거주자인 노약자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주택을 관리해준다는 것이다. 김중미 작가의 베스트셀러 <괘이부리말 아이들>의 무대인 인천시 쪽방촌에서는 원주민 100% 재정착률을 목표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광주시가 되짚어보아야 하는 공동체 의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유형으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 사업비 115억을 들여 구조가 튼튼하고 쓸만한 주택은 존치하면서 개량하고, 도로와 주차장 및 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임대주택 100여채를 건립하여 철거되는 주택에서 살던 주민을 그 동네에 수용하고, 15억을 들여 공동작업장을 지어 주민들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두 지역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접지역에 일터를 갖고 있으면서 교통비를 최소로 들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신 주거비를 줄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이거나 노약자들이다.

‘괘이부리말’은 피난민촌이었다. 힘들고 어렵게 도시생활을 극복해 세계10대 경제대국을 만든 우리의 아버지들의 이야기이자 추억의 공간인 우리의 동네이다. 광주에도 이러한 동네들이 많이 있었다. 백화마을, 계림동, 운암동, 그리고 용봉동에도... 함께 울고, 웃었던 도시속의 우리동네가 사라져가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5기 들어 행복한 창조공동체를 부르짖고 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동네의 부활이다. 공동의 기억과 체현에 기초한 공감어린 생생한 이야기가 늘 흘러 다니고, 불필요한 신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오래된 생활공동체가 아니던가? ✽



인천 만석동 빈민촌 현황

‘괘이부리말’은 피난민촌이었다. 힘들고 어렵게 도시생활을 극복해 세계10대 경제대국을 만든 우리의 아버지들의 이야기이자 추억의 공간인 우리의 동네이다. 광주에도 이러한 동네들이 많이 있었다. 백화마을, 계림동, 운암동, 그리고 용봉동에도... 함께 울고, 웃었던 도시속의 우리 동네가 사라져가고 있다.

창에 대한 모든 것

TOTAL WINDOW SOLUTION

**BIPV (태양광발전시스템)**  
BIPV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 패널을 창·벽·외벽·외문·외문틀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물외부 창·벽·외문·외문틀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시스템이다.

**키린필**  
키린필은 초고층 빌딩, 상업용 건물에서 일반 주택에 이르기까지 넓게 사용되는 고강도 외장 시스템으로 단열하고 차양으로 외부 디자인의 정돈된 시스템입니다.

**가능성 유리 (FPB, Low-E)**  
가능성 유리는 단열성능을 갖춘 시계에서 가장 원대한 단열가능유리 시스템으로 자외선차폐 기능을 최적화로 만들어 냈습니다.

**시선헤링**  
합판 합판(합판, 내화합판) 구조합판, 내구합판, 디자인이 강화된 고품격 외장재로 PVC, 알루미늄, 알루미늄 수반합판입니다.

**럭시에너지(주)**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33-33  
대표전화 062)525-6801  
www.allwindow.co.kr

**알파시스템창호(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913-4  
대표전화 062)943-6801



2011년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작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 Jeonju University Sta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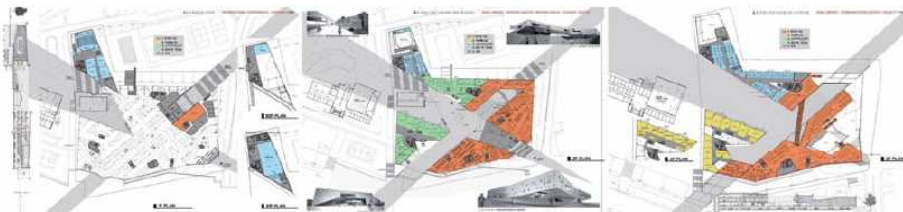
- "다수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더 역동적인 캠퍼스 센터를 창조한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는 신세대 학생들의 감각에 부합되는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지향하여 디지털화 지능화 사회화로 종합적문화공간으로 확충되도록 계획되었다.

캠퍼스를 분석한 결과 대형 개방공간, 건물 슬라브 등 다소 균질한 조직이 나타났다. 캠퍼스는 도시 밀도와 이익이 적은 공원유형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능과 연계하되 동선의 중복을 피하고 전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자료실 및 정보관련실은 주순환 동선과 연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수직동선을 계획하였고 옥상 휴게광장과 지하 썬크의 연계를 통해 스타센터 공간의 수직동선이 집중을 분산하고 다양한 휴식과 시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입면계획은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 독자성



공간적 측면을 통해 캠퍼스의 중심으로 학생들을 끌어 모을 도시형 만남의 공간과 보는 이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복합적 매스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내부는 고리안의 고리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공공공리는 캠퍼스와 건물을 연결하고, 내부고리는 공간내 프로그램을 이어준다.

평면계획은 스타센터의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기능별 및 동선별 구획처리하였고, 관리 및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용별 활용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전자스타센터의 개념이 반영되도록 특수 목적실을 집중 구획(인터넷카페, 디지털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전산실 등)하였고, 기존건물(정보통신원)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별 수직 및 수평동선 계획을 통해 관리상 스타센터

(identity)과 현대성이 강조된 이미지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스타센터의 상징성을 고려, 전통적 형상을 추상화하고 이를 전체 매스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주변의 환경과 공원 내의 시각적 초점으로서 적용도록 하였고, 중후함과 경쾌함의 대립적 요소를 사용하되 재료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상호보완하도록 하였다.

단면계획은 대지의 레벨을 그대로 이용한 단면계획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실현하도록 하였고, R.C+철골조 시스템을 위주로 한 스타센터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모듈을 적용하였다. 경제적인 층고 모듈을 사용하되 스타센터의 공간적 기능을 배려했고 경량 건축구조와 습식 콘크리트 구조를 병행하되 기능적 디자인 요소로 인지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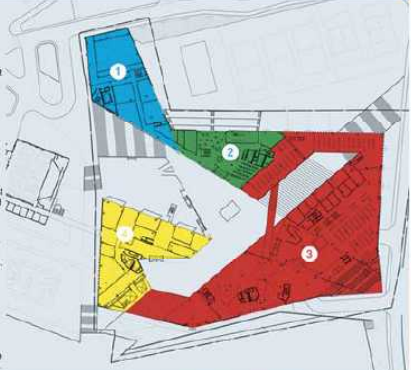


작품명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  
 건축주 : 전주대학교  
 설계 : (주)길 건축사사무소  
 시공 : 서희건설

CONCEPT

AREAS OF RELATED DESIGN

- ① CONVENTION CENTER
- ② FACILITY CENTER
- ③ CENTRAL LIBRARY
- ④ COMPUTER CENTER



There are four zones of interest in the library. Each area should address its fitting out to the requirements of the space. The convention center is the most representative area of the Star Center. Materials should serve a more representative purpose. The Facility center is with its food court more of a living room. The library as a large space needs elements of sun-shading and orientation. The computer center is the most office like space of the four zones. This guideline will influence the choice of materials and design.



#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초청공모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제

- 시민이 참여하고 '나는 가수다' 방식으로 진행된 설계공모 공개심사결과 당선작으로 김아연(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김광수(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 팀의 '광주의 판, 그린 콘서트' 선정
- 이번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은 광주의 근대건축에 관한, 그리고 보존하여야 할 건축물에 관한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계기 만들어...



지난 10월 3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100여명과 건축, 조경, 디자인 전문가 7인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초청공모 공개심사가 진행되었고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지난 몇 년 간 철거와 보전의 논란 끝에 부분 보존키로 최종 결정된 광주공원 시민회관.

광주시에서는 이 지역 최초로 건축설계를 '지명초청 경기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 초부터 설계경기 연구와 관련 제안서를 공모하였으며, 그 제안서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지명초청 설계경기 작품을 접수받고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결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기획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편집자주

들어 보자면서 그 와중에 시민회관은 좋은 역할을 할 거리면서 내세운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공원에도 그리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잘 지어졌다 판단되는 건축물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그 흔적이 사람들에게 향수와 활력을 불어넣을, 광주의 역사가 느껴지는 공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현재 노인이라고 하는 특정 세대만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이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시민의 공원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퇴락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를 화두로 과거 도심의 중심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 중에 있다. 광주공원은 구도심에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에 대응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가치가 있다.

## 2011년 10월 31일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초청공모의 공개심사를 통해 당선안을 선정하였다.

## 2010년 9월 16일

막 시작하려던 화장실 벽과 계단의 일부가 철거되던 때에 광주 시민회관의 철거공사가 중지되었다. 이 철거를 막기 위해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업 교수는 시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으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와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는 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다. 막상 그 결정을 내리는 공헌자는 누가 뭐라 해도 광주시청 공원복지과 임철진 과장이다.

광주 시민회관이 지어진 지 40여년이 흘렀다. 건물은 노후화되었고, 그 사이 이 공원이 있는 장소는 구도심이라 불리게 되었다. 주변은 쇠퇴하여 갔고, 시민회관의 기능은 주변으로 아늑한 도시의 다른 곳의 새 건물들로 옮겨졌다. 이 건물의 쓰임새는 없어졌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았을 것이다. 시장의 결제를 거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도 끝났다.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모든 공사 준비를 마친 즈음에 진행을 막고,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 임영배, 그리고 시민회관

광주 시민회관 건립전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은 영화관 몇개기 전부였다. 문화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와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모임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당시 정시채 시장의 뜻이 모여 대규모 문화공간으로서 건립된 것이다. 설계자는 당시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직 중이던 임영배 교수이다.

근대화 이후, 독자적인 건축기술과 미학을 발전시킬 계기를 갖지 못한 한국, 그리고 광주의 건축형식은 대개의 일본의 것을 거쳐 수입한 서구의 건축형식을 모방하며나 변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개 서구 보다는 20~30년, 서울에 비해 10년 정도 건축양식을 뒤따라 건축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韓國)의 현대건축(現代建築)은 서양건축(西洋建築)이 들어온 지 80년, 해방(解放) 후 20년의 연륜(年輪)을 쌓아왔다. 그러나 해방(解放), 동란(動亂), 혁명(革命) 등의 정치적(政治的) 혼란(混亂) 속에서 주체의식(主體意識)을 외면(外面)한 허다한 이종(異種) 양식(樣式)이 한국적(韓國的) 풍토(風土)에서 횡행(橫行)하였다. 한국(韓國)의 현대건축(現代建築)은 고전(古典)에서 온 것도 아니었으며 세계조류(世界潮流)에 입각(立脚)한 선격적(先見的)인 것도 또한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問題點)으로부터 서양조류(世界潮流)에 맹목적(盲目的) 추종(追從)에서 탈피(脫皮)하여 전통창조(傳統創造)에의 전환점(轉換點)에 와 있음을 느끼며, 새로운 우리의 것을 시도(試圖)하기 위해 횡적(橫的)인 형태(形態)의 모방(模倣)에서 조속히 탈피(脫皮)하고 전통(傳統)을 정신적(精神的) 근간(根基)한 토대(土臺)로 딛고 서서 종적(縱的)이고 창조적(創造的)인 발전(發展)으로 대결(對決)하여야만 한다. 이런 시도(試圖)와 결정(決定)없이 오늘날 다양(多岐)하게 발전(發展)하는 세계건축조류(世界建築潮流)속에서 한국건축(韓國建築)의 미래상(未來像)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임영배(林永培), 현대건축형태(現代建築形態)의 전통성(傳統性) 문제(問題), 전남대학교 공대지3권, 1968

적잖게 고민했을 임영배 교수는 이 작품에 관하여 "이 계획안에서는 건물과 광장의 상호 관입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산만하던 공원공간을 정리하고 어프로치의 선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기존의 석계는 보존하게 되었다. 입면에서도 광주와 남도의 이미지를 여유 있는 율형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당시에 접하게 된 라이드의 라칸빌딩을 본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

▼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 초청공모 당선작 - 김아연+김광수(광주의 판, 그린 콘서트)



## 보존하자는 이유

광주공원 시민회관은 세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공간은 공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광주 시내의 도시공원으로서 광주의 근대사 속의 중요한 절목이다 그 행위가 일어난 역사적 장소이며, 시민회관은 그 공간의 중요한 점유자이다. 둘째 시민회관은 1970년 당시 일부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문화시설이라고는 전무한 때에 문화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 건립된 광주 최초의 대규모 시민 문화공간이다. 셋째 시민회관은 서구 건축의 도입 이래 근대건축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이후의 건축에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광주 근대건축에 중요한 자산이다. 더불어 시민회관을 설계한 임영배는 해방 이후 광주에서 건축교육을 받은 1세대 건축가라는 사실이다.

광주 시민회관의 건축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보존 주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공원을 더 좋은 공원으로 만

**새로운 프로그램**

광주공원과 시민회관은 지난 40년간 광주도심공원의 주요시설로서 시민들의 문화와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며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어떤 사람에게든 인성에 있어 무슨 일보다 중요한 결혼의 장소로, 아이들에게는 글짓기 대회장소로서 5.18 광주민중항쟁 때에는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사용하던 공간이기도 하였다. 시민회관은 일상적으로 광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막연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광장을 위요하는 적절한 공간형성지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었다.

그러한 건축물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 건축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생명을 다하였을 때 철거되거나 보존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라져야 할까? 등록문화재로서의 중요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건축물이 건축적, 경관적 혹은 공원 내의 시설로서의 재생가치가 있다면 그 의식은 제법 연장될 수도 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재생하는 일은 건축이나 조경의 영역만은 아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떠나 없어졌을 때 무엇인가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상의 에너지를 요소였다가 절망지도 모른다.

그래서... 광주의 다양한 언더 인디밴드들의 연습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구상되었다. 광주에는 판소리에서 하드락 밴드를 포함해서 연극과 심지어는 소형 뮤지컬까지 포함하는 100여개의 밴드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들에게 연습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사용시간에 따른 '공연'이다. 관객의 수를 물어서는 안 되는 공연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연습실도 둔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판소리에겐 어르신이, 락 공연에는 청소년들이 어린이 뮤지컬에는 가족이, 그리고 만들어진 여백의 공간에 유모차를 끈 엄마들이 올 것이라 상상했다.

프로그램의 이름을 '문화 동맹'이라 지었다. 시민 스스로 의해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장소, 이 생태계에 다양한 문화가 스며들게 하고, 이를 시민이 향유하고 칭찬할 수 있는 장소를 '문화 동맹'이라 부르자 했다.

※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한 글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의 것이다

**지명초청공모**

공모의 목적은 '광주공원 시민회관의 사회적, 구조적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방안 제시를 통한 건축적 재생', '다양한 세대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공연문화의 중심지역활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부여와 공간계획', '재생된 건축물과 공원 및 도시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 '리모델링될 시민회관과 함께 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광주공원의 계획'으로 정해졌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공원 전체와 관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광주시 구도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청작가는 건축가와 조경가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초청작가팀은 김이연+김광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 양성구+김창국(미국 Elther Ship 대표/urban Jungle 대표), 정우주+서현(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민석+하성한(메스터리 건축사무소 대표/솔도조경), 조성호+최신현(광주공간 건축사무소 대표/CTOPOS 대표) 등이다.

**심사, 그리고 시민심사위원 100명**

어느 공모나 그렇지만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건축 분야만이 아닌, 도시와 조경, 문화기획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장으로 민현식 교수(건축가/한국종합예술학교 건축과 교수)를 초빙하였으며, 황순우(건축사/바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강남구(건축사/한국건축기행회 광주지회장), 박홍근(건축사/건축사무소 주요 대표), 김도경(경희대 조경학과 교수), 강동진(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찬국(필머리 대안미술학교 디렉터) 등이다.

시민회관을 보존키로 결정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건축설계경기 연구 및 관리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용역을 수수해보자 하고 낸 아이디어가 '시민심사위원단'이다. 전문심사위원을 7명으로 하고, 시민심사위원을 100명으로 하자 했다. 이 100명은 1표이다. 전문심사위원 7표와 합하면 전체 8표인데, 만약 4:4 동수가 나온다면 시민심사위원단이 지지한안이 당선되게 하였다. 심사결과가 그리 침체하지는 않았다. 당선자는 김이연+김광수 팀의 '광주의 판, 그린

콘서트'이다.

이런 일에 있어 최고라 평가된 것은 시민심사위원단이다.

**민현식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시민회관을 보존하려는 광주시민의 지혜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하여 5명의 참신한 제안도 감동적입니다. 어떤 한 건축물이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잃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며, 의향이며 예향인 광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민현식 심사위원장

심사위원들이 밝힌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C적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새로운 가치의 창조), 2)광주공원의 역사적 맥락 하에 제안된 안이 진보했는가?(역사적 기억의 연속), 3)폐쇄적 공연공간인 기존 건물의 공간이 주변 광주공원의 공간과 장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공간과 장소의 관계성 극대화), 4)이미 시민들에게 icon화된 '임영배'의 작품이 지속적인 가치로 남아 있는가? 5)기타 관리, security, 실현 가능성 등이었다.

'빛고를 열린 문화 플랫폼'은 21세기 예술(특히 공연 예술)은 쌍방향문화생산이란 점을 강조하고 개방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미 icon화된 임영배의 건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진화시켜 광주 내 다른 공연문화시설과 차별화하고 있다.

당선작인 '광주의 판, 그린 콘서트'는 광주공원의 역사에서 출발한다. 21세기적 가치에 따라 상징물(대부분 권위적으로 경도된)은 storytelling으로 바뀌고, 40년의 기억을 일상생활의 바탕으로 쓰며, 건축과 공원이 분리된 기존의 형식을 바로 건축이 공원자체인 발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제안된 두 개의 판을 지원하는 바닥 벽, 커튼이라는 장치가 모든 activity, 예상을 지나는 예술을 형식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변화된 시민회관은 함께 변화될 광주공원과 함께 광주 시민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곳이 될 것임을 확인한다.

**남아있는 과제**

광주시민회관의 보존을 주장하며 든 논거는 다음과 같다. 시민회관은 그 이전의 건축물이 수입된 근대건축의 이면에 충실하거나 따라하는 것이었다면, 정체성의 문제 또는 근대건축 이후 광주건축의 문제 등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건축물로서 이후 현대건축의 전환기를 표현해낸 작품이다. 이러한 근거와 더불어 '등록문화재가 5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지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3~40년 된 건축물들이 이렇게 쉽게 철거되던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남길 것인가?' 등이다.

문제는 소위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인들 사이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지어진 벽돌조 혹은 석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면서도, 페인트칠된 흰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멧웃는 구조물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한 조각가가 장색하고 물었다. "그게 어떤 예술성이 있느냐?"고, 앞의 논리들도 아무리 답해 봐도 마음을 얻지 못했다. 남은 것은 오직 40년의 세월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찌되었건 광주시민회관은 1970년대 광주 근대건축의 대표적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러 곡절을 거쳐 철거는 면했지만, 광주의 근대건축에 관한, 그리고 보존하여야 할 건축물에 관한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사실 이 논의는 늦었다. 서구의 것이, 서울을 거쳐 광주에 이식되는 상황에서 광주의 건축에 대한 평가 및 비평에 대한 논의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 광주의 근대건축에 관하여서는 천덕영 교수의 저서들이 유일하다. 이 문제는 오직 1970년대 건축물만의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건축적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며 발전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나 싶다.

우여곡절 끝에, 보기에 좋은 결말을 맺은 것으로 설계경기는 끝이 났다. 좋은 집이, 좋은 공연이 되기에는 이제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우리의 굳어있는 역사를 살아나게 하는 계기가길 바란다.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건축설계경기 연구 및 관리용역 전문위원 이효원 교수(전남대학교 건축학부) lee.hw@jnu.ac.kr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초청공모작(당선작 외)**



▲ 조민석 + 하성한(빛고를 열린문화 플랫폼)



▲ 정우주+서현(광주 어린이도서관)



▲ 양성구 + 김창국



▲ 조성호+최신현(40이년의 초대)

# 세계의 신도시\_ 5부

대규모 기업도시 -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 미션베이호

## City of Mission Viejo

리포카라와치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시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지점, 반텐(Banten)주 탕제랑(Tangerang)시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이며, 미션베이호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서쪽 태평양에 접한 오렌지카운티 중앙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 리포카라와치

(1) 리포그룹 : Lippo Group. 리포그룹은 리포카라와치 이외에 자카르타 동쪽 베키시(Bekasi)주 주도인 키카랑(Cikarang)시에 신도시 리포카랑(Lippo Cikarang)을 개발하였다. 리포그룹은 백화점, 슈퍼마켓, 다국적 기업, 은행, 케이블 TV, 보험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

### 미션베이호

(1) 도널드 브렌 : Donald L. Bren(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부동산개발업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신도시 어바인을 개발한 회사(Irvine Company)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Forbes)에 '미션베이호' 40대 부호 중 38번째를 차지한다고 발표(2005년)하였다.

(2) 건축양식 : Mission Revival Style Architecture. 초기 캘리포니아주에서 건축된 스페인식 가톨릭 교회건물과 군대건물에서 영감을 얻어 19세기 후반에 시작한 건축운동(안식)으로 1890~1915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였다.

(3) 선정 : 2007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Morgan Quitno), 미국에서 세 번째이며 주 내에서 첫째로 안전한 도시라고 발표(CQ Press)하였다.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2011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난 9월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기획하였다.

도영준 교수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Urban-00@hanmail.net



리포카라와치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시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지점, 반텐(Banten)주 탕제랑(Tangerang)시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이며, 미션베이호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서쪽 태평양에 접한 오렌지카운티 중앙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 리포카라와치/Township of Lippo Karawaci / 대규모 기업도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시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지점, 반텐(Banten)주 탕제랑(Tangerang)시의 남쪽에 위치한 주거와 상업기능의 최적화를 추구한 위성도시'라는 개발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planned community)이다.

계획면적 약 6.0km<sup>2</sup>(1단계)의 이곳은 인도네시아 재계순위 7위인 리포그룹이 조성하는 곳으로 1993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리포그룹이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극대화된 도시개발이었다.
- ② 전체면적의 약 35.0%를 상업업무지역으로 약 30.0%를 주거지역으로 배정하였고, 나머지 녹지(20.0%)와 도로(15.0%)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공해 유발시설은 단 하나도 들이지 않았다.
- ③ 깨끗한 환경,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한 리포카라와치는 크게 세 곳의 주거지구와 상업지구로 구성되었으며, 1996년 개장한 자카르타 서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가 상업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 ④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편의점에서부터 약국·세탁소·식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편의 및 상업시설을 한 곳에 모아 외부 쇼핑객을 끌어들이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개발회사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개발이전 습지지역이었던 이곳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 기준(benchmark)이 되고 있고 리포그룹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탕제랑시에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입주하고 있다. 리포카라와치는 기업도시의 하나로 많은 주민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 미션베이호/City of Mission Viejo /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서쪽 태평양에 접한 오렌지카운티 중앙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신도시(master planned community)로 행정구역 면적 약 49.3km<sup>2</sup>에 인구는 약 10만 명(2008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션베이호 시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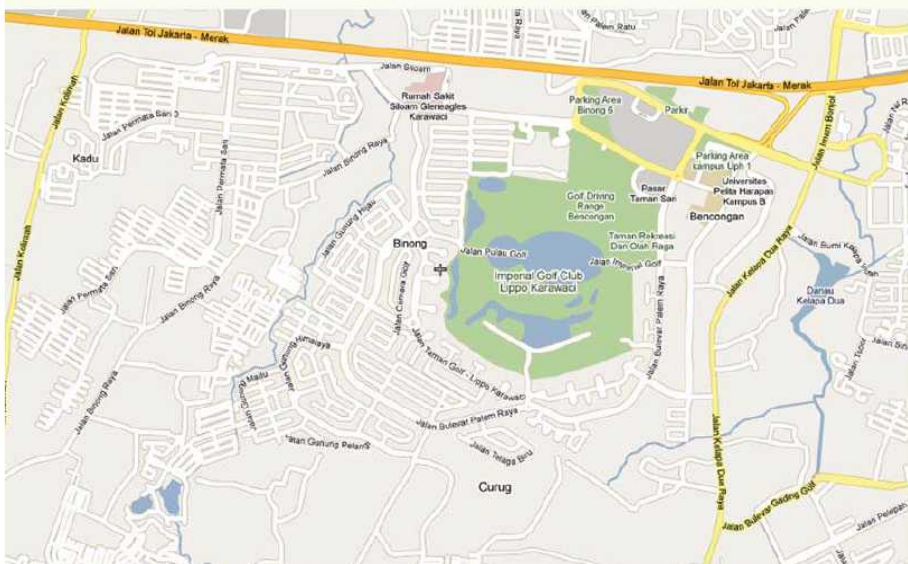
- ① 단일 목적으로 건설된 가장 큰 신도시의 하나이다.
- ② 대규모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콘도미니엄, 대학(Saddleback College), 지역중심 몰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였다.
- ③ 1963년 도시계획가인 도널드 브렌 등이 회사(Mission Viejo Company)를 설립하여 개발을 주관하였다.
- ④ 도널드 브렌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계곡에 도로, 언덕에 주택 등을 배치하는 초안을 마련하였다.
- ⑤ 1965년 기본계획은 오렌지카운티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1966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 ⑥ 1980년 미션베이호시는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 ⑦ 주택과 쇼핑센터 등은 스페인식의 건축양식으로 설계되었다.

1970~1980년대 인기가 좋아 주택지가 많이 팔렸으며, 오늘날 이곳은 미국에서 주민이 살기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골프장(가운데)을 중심으로 한 리포카라와치 시가지도 골프장 북동쪽에 접하여 대규모 쇼핑몰이 입지하고 있다.

▼ 미션베이호 건축양식의 예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마지막회 - 보헤미아의 진주, '체스키 크롬로프'

## Bohemia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ykhos@chosun.ac.kr

- 제1화 ~ 제5화 : 개요, 로마, 프라하, 부다페스트, 비엔나(10년 10월호~11년 2월호)
- 제6화 : 문명의 도시 '베네치아' (2011년 3월호)
- 제7화 : 꽃의 도시 '피렌체' (2011년 4월호)
- 제8화 :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 (2011년 7월호)
- 제9화 : 도시설계 모델의 창조도시 '바르셀로나' (2011년 9월호)
- 제10화 : 지상의 낙원,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2011년 11월호)

근대 도시는 도시가치를 산업적 기능적 합리성에 두면서 사람을 소홀히 해왔다. 기능형, 분업형, 완결형, 외곽 확산형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계획은 옹도지역 지구제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기면서, 도시는 정체성을 잃고, 평준화, 평등화 길을 걷게 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은 도시와의 대치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졌고, 전통적 도시문화는 붕괴하여져 갔다.

더불어 도시의 정보를 수집, 가공 발산하면서 도시매력을 만들던 도심공간은 도시의 축이나 초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는 도시투어리즘 시대에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역사도시에서 도시계획은 디자인 구조로서 위치를 부여받았고, 건축은 맥락과 대조, 보존, 광장을 바탕으로 공공에 공헌하는 존재방식을 가져왔으며, 이는 오늘날 도시경쟁력으로서 경제적 활력을 만들고 있다. 건축가나 도시설계가 역사도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체스키 크롬로프도 예외는 아니다.

상시 시대의 풍경을 그대로 갖고 있어 관광객들이 항상 찾는 관광 코스이다.

골목길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헤매지 않고, 다시 광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특히 보헤미아인들의 낭만을 느껴볼 수 있는 주택들과 토산품 가게, 목재공예들이 내걸린 기념품 상점 등 각종 상점들이 즐비하여 아주 인상적이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대영주였던 루돌프 2세의 서자와 이발사 딸의 비극적 사랑이 전해오는 이발사 다리도 만날 수 있고, 광장 동쪽에는 이 도시를 비롯한 남 보헤미아의 역사와 민속, 문화에 관한 것을 전시하고 있는 지역 박물관도 만날 수 있다.



체스키 크롬로프 시가지 지도



보헤미아의 체스키 크롬로프

### '리틀 프라하' 라고도 불리는 '체스키 크롬로프'

보헤미아의 진주, 리틀 프라하로 불리고 인구 2만명이 채 못 되는 체스키 크롬로프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독일의 국경이 맞닿는 보헤미안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프라하에서는 약 300킬로미터, 보헤미안 중심도시인 체스키부다 요비체에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볼타바 강줄기의 언덕에 입지하고 있다. 이 도시는 13세기 중반에 이 지방 대지주였던, 비텍 백작이 이곳 풍경에 반해서 볼타바 강이 내려다보이는 돌산 위에 고딕양식의 성을 건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비텍일가에 속한 로젠베르크가가 보헤미아 광산에서 얻은 재산으로 교회, 수도원, 학교 등을 세우고, 수공업과 상공업 등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황금기를 누리기 시작하여 16세기에는 크게 번영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이 가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버려진 도시나 다름없이 잊혀졌으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후에 여행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고 있다. 특히 1992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프라하, 성요한 네포콕 순례교회, 쿠티나 호라, 호란 비체와 함께 도시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건축물에 장식된 가문의 문장인 꽃잎 5장이 달린 장미만이 당시의 이 가문의 영광을 말해 주고 있다.

체스키 크롬로프는 시가지는 S자형으로 관통하는 볼타바 강을 중심으로 지형이 높은 위쪽(북쪽)에는 체스키 크롬로프성과 성의 탑, 성의 극장, 부대 요비체문 등이 있고, 강의 아래쪽(남쪽)에는 시가지 중심인 소보르노스티 광장과 성 비타성당, 박물관 등이 입지하고 있는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 붉은 지붕의 건축물로 가득 찬 중세의 화려한 도시모습은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볼타바 강과 어울려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우뚝 서 있는 고딕양식의 성과 성의 탑, 그리고 약 15킬로미터의 강줄기를 최소 2시간이 걸려서 시가지를 관통하며 내려가는 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강변의 카페에 한가롭게 앉아서 세월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다.



체스키 크롬로프의 매력 골목길



소보르노스티 광장

광장의 아래쪽에는 이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인 후기 고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성비타 성당도 만날 수 있는데, 성 비타 성당은 성 비타에게 바쳐진 건축물로서, 14세기 초에 착공되어 15세기에 완공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군용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가늘고 좁고 높은 탑의 성당 내부는 그물 모양의 볼트와 초기 바로크양식의 제단, 그리고 고딕양식의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성당 앞에는 지난날의 예수회 신학교였던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도 볼 수 있다.

시가지의 전체 풍경을 보려면 볼타바 강의 위쪽의 절벽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체스키 크롬로프성에 오르는 것이 좋다. 이성은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프라하성 다음으로 큰 성으로 후대에 르네상스와 바로크양식이 가미된 특이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성의 탑에서는 골목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 항상 관광객들로 붐빈다. 여기에서 시가지 모습을 보면 매력적인 도시 풍경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데, 성에는 13세기에 영주가 성 방어를 위해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공의 후손도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바로크 극장도 볼 수 있다.

매년 6월이면, 이 성에서는 유럽귀족들이 참석하는 음악축제가 열리는데,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연주회를 즐기거나 가면무도회를 즐긴다고 한다. 이 성에는 여러 개의 정원과 많은 건축물이 중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궁전으로 쓰였던 방과 식당, 창고, 부엌, 접견실 등에는 각종 공예품, 그림, 물품들이 잘 보관되어 있어, 당시에 이 지방 귀족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 성의 동쪽에는 수도원과 맥주 양조장도 그대로 남아 있고, 뒤쪽에는 성을 방어하기 위해 1598년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서 4년 만에 세워진 10개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부대요비체 문도 만날 수 있다.

### 건축·도시 전문가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도시

이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화가 에곤 실레이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빈에서 그림 공부를 한 에곤 실레는 28세에 오직했지만, 처음 어머니 고향인 이곳을 방문하여 중세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은 버려진 집이 많음을 보고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 했는데, 그가 그린 시가지 풍경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일깨워 주고 있다. 이처럼 이 도시는 자연이라는 독특한 그라운드와 피규어인 맥락과 대조, 도시미를 띄는 광장 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은 물론, 사람들의 삶 문화가 모자이크처럼 남아 있는 골목길도 그대로 있어서, 건축이나 도시설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도시이다.

### 시가지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골목길들

175년에 페스트 증식을 기념하여 만든 중앙의 분수대와 페스트 락치 기념으로 만든 성인 조각 작품이 설치된 소보르노스티 광장은 화강이 달린 르네상스 양식의 현관을 갖고 있는 시청사를 비롯하여 레스토랑, 카페, 전문화랑, 골동품 상점, 고서점들을 찾는 관광객들과 벤치 등에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는 관광객들, 그리고 광장 바로 옆 지하식당의 예약순서를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늘 붐빈다. 이곳에서는 미국의 버드와이저 맥주와의 상품권 분장에서 승소하여 유명해진 보헤미아의 명물 버드와이저 맥주맛도 볼 수 있다.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뻗어 있는 골목길들에는 르네

Cesky Krumlov

전남대학교병원 조성계획은 고객중심의 전문화된 병원, 전문질환 분야의 대형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실용연구, 첨단중개연구의 새로운 영역 구축으로 산업의 중추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의료취약지구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의료단지를 건립·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설계경기 당선작은 개발계획을 4단계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새병원 신축시에도 기존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였고, 요구시설보다 한 단계를 추가하여 새로운 전문병원의 증축에 대비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병원 이전계획의 단순화와 명확한 연계성, 수익시설의 복합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병원 수요의 등장으로 고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분야의 진화에 대비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정관성 건축사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관표 건축사
- 우수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종률 건축사
- 가작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진구 건축사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민화 건축사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신축공사 설계경기

### Healing Ribbon for Children



###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정관성 건축사 +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관표 건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일원  
 병원대지면적 : 31,547.50㎡  
 신축대지면적 : 5,040㎡  
 연면적 : 11,570.33㎡  
 건축면적 : 1,878.78㎡  
 건폐율 : 34.45%  
 용적율 : 145.5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수 : 지하 3층, 지상 8층  
 외부마감 : 로이복층유리, 목재패널, 금속패널  
 주차대수 : 80 대



### 우수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종률 건축사

### 가작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진구 건축사 +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민화 건축사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 만원의 책임감을 가진 건축사 \_ 김강수 건축사



꼬깃꼬깃한 만원을 살포시 쥐어주시면서 음료수 사먹으라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설계, 감리자로서의 책임을 느꼈던 그는 그 만원을 한동한 소중하게 지갑속에 간직했다고 한다.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마음을 추스릴때마다 ...



전남 광양 / (주)연우 건축사사무소 김강수 건축사

김강수 건축사 그와의 첫 만남은 그가 전남건축사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였다. 회원들의 위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역설하는 모습과 넉넉한 입가의 미소를 생각하며 광양으로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연우건축에 도착하여 진행된 일문일답은 인터뷰가 아니라 생활속의 진솔한 이야기였고, 그의 웃음속에 왜 넉넉한 여유로움이 배어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 내게 있어서의 건축이란 '운명' 이었다.

육남매, 부모님, 노조모 그렇게 대식구가 살았던 어린시절을 그는 이렇게 말하며 회상했다.

'몇 년전에 어릴적 대식구가 살았던 그 작은 방에 큰 '대'로 누웠더니 혼자 놀기도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한칸 방에서 어찌 그 대식구가 살았는지...'

하지만 어린소년에게는 너무도 컸던 집이었으며, 그 집에서 보냈던 시간이 그리워질 나이가 되어서야 그곳에서 키웠던 커다란 집과, 나만의 공간에 대한 꿈, 그리고 장남으로 생계를 위해 전주공고 건축과로의 진학, 그렇게 이어진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속에서 나도 모르게 건축은 운명처럼 다가왔고 그것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집은 헐리고 없지만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때를 생각하며 훈훈한 미소를 머금는다.

## 건축으로의 길을 걸으며..

그는 전역후에 PECI(현 포스코건설)에 입사하여 광양·포항제철소의 설비설계, CAD등 기술개발업무와 건축전산업무를 담당하고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주)연우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후배들의 건축문화 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려대, 순천대 외래강사를 역임하였고, 지금도 후배건축사들에게 배움을 강조하며, 본인 스스로도 건축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배우는 자세로 설계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 건축설계활동, 작품 활동에 대한 소개

건축사사무소 창립 후, 20여년간 광양지역의 건축문화창달을 위해 애쓰는 공으로 그는 1997년 광양시 우수건축물대상 및 2002



(주)포스코 자동차장판 통합기술센터 (2007)

년 특색 있는 건축물대상을 수상하였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가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은 건축물은 좀 더 건축주와 토론하고 설득하며 좋은 결과물을 얻기위해 애쓰는 다수의 일상적인 건축물들이라고 얘기한다.

## 건축이외의 사회활동

1990년부터 20여년간 활동한 동광양로타리, 법원 조정위원, 경찰서 행정발전위원 등을 통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왔지만 그는 2004년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건립행사에서 어느 미장공에게 들었던 말을 기억하며 그는 '내가 하는 봉사는 봉사도 아니다' 라고 한다. 하루하루 생계형 일을 하는 노무자의 '언제든지 이런 봉사행사가 있다면 불러주세요. 비록 기술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만이라도 내집 마냥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서 건축의 힘을 느꼈고, 진정한 봉사정신도 배웠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몇 년전부터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지났다는 그는 지금도 담배값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일년이면 백만원 가까운 돈을 모아 봉사활동에 쓰기 위해서다. 가장 큰 사람은 베품과 나눔이었는데 김강수 건축사 그의 웃음속에 그러한 넉넉함이 배어 있는 듯 하다.

## 급변하는 시대에 건축사의 역량강화에 대한 철학

전라남도건축사회장 역임시절에도 지역건축사회의 활성화와 건축사 전문교육 및 정보전달체계의 확보, 워크샵의 정례화 등으로 건축사의 역량 강화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논제를 가지고 책과 씨름하며 건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하염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 후배들에게 조언 및 당부

"언제가 노부(老父)의 집을 설계·감리하면서 건축물을 완공하는 시점이었다. 주춤 주춤 바지 언저리에서 꼬깃꼬깃한 돈, 만원을 주시면서 음료수 사먹으라는 말씀에 감명받아 만원을 한동한 소중하게 간직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내 아버지 생각이 났으며, 노부의 진정성이 보여기 때문이다.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질 때마다 한번씩 보곤했던 그 만원의 의미를 후배들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주는 주택을 설계할 때 밝은 모습으로 건축사를 찾는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그런 모습일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건축사. 마음에 드는 작품보다는, 반성이 앞서는 건물들과 재정난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보면서 진정으로 아파하는 건축사가 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그는 작은 바램이 있다. 늘어서 건축설계를 할 수 없을 때 수필집이나 시를 써서 조촐한 출판기념회를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다.

취재: 박종호 건축사기자 k21024@chol.com  
정리: 박선남 건축사기자 psn0188@hanmail.net



금호교회 (2006)



광양청룡유치원(2000)



설촌(松村) -1997 광양시 우수건축물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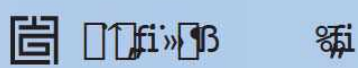
#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의 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고 : 500,000원
- 하단1/2 광고 : 300,000원
- 하단1/3 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 입금 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 건축을 담사기 ·

### 영암 한옥호텔 '영산재'와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최유선 건축사보  
건축사사무소 선



영산재 일구



복청형 한옥



객실 복도

11월 30일 비가 내리는 아침 광주역에 모여 전남 영암에 있는 한옥호텔 '영산재'로 길을 떠났다. 비가 내려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떠났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영산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덧 영산재의 모습이 보였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생긴 한옥호텔이라 그런지 깔끔하고 정갈해 보였다. 영산재의 내부를 하나하나 보고 사진을 찍다보니 전통한옥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도 많이 보였다.

현대건축의 깔끔함과 전통 한옥의 고풍스럽고 정교한 모습이 어울려져 더욱 보기 좋았던 것 같다.

객실로 연결되는 복도를 통해 외부의 모습을 봤을 때 한옥에서 찾기 힘든 복층으로 된 한옥이 눈에 들어왔다. 전통 한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느낌이 그런지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웠지만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때마침 영산재에서 마련해준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서 우리는 다음 장소인 해남 고산 윤선도 선생의 고택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곳에는 고산 윤선도의 유물전시관이 있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윤선도 일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 작품 한 작품 감상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길에 눈길을 사로잡은 엘리베이터 벽면의 미인도! 허전한 뒷벽면을 채워주고 보완해 주기 위해 새겨 놓은 미인도는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가 되어 유물전시관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다.



벽면에 새겨진 미인도

유물전시관을 나와 우산을 쓰고 녹우당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녹우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의 모습이 그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 은행나무를 지나 녹우당에 들어서니 전통한옥을 구경하고 있을 무렵 윤씨 종손으로 그곳을 지켜내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안채를 공개해 주셨다. 어르신께서 직접 생활하시는 곳이다 보니 일반 관광객에는 안채의 내부를 보여주시지 않지만 광주건축연합회에서 담시름 와 특별히 배려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안채에 들어서자마자 전남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자 형태의 한옥과 원형기둥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형 한옥



고산사당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200년 된 한옥의 내부를 돌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러 가는 것 같아 기분이 한층 좋았다. 녹우당을 구경하고 나서 담장너머에 있는 고산 사당과 어촌은 사당을 보고 나오는 길에 여운이 남아 다시 뒤를 돌아보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한옥과 산에 둘러싸인 물안개의 모습이 한복의 그림 같았다. 한옥에는 고즈넉하고 정겨운 그런 멋이 있는 것 같았다.

이번 답사를 통해 전통한옥과 현대한옥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꼈다. 정말 유익했지만 비가 와서 이곳저곳을 많이 못 돌아본 것이 못내 아쉽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비자나무숲을 그 누군가와 함께 한 번 걸어보고 싶다.

## 전남대학교 2011 추계 학술 대회

— 한국도시설계학회 주관으로 도시설계분야 학술논문 발표대회



지난 11월 5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코스모스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는 '2011 추계 학술 대회'가 열렸다.

본 학회는 도시설계분야의 이론과 실무, 정책과 국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분야의 학자와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학술논문 발표 이외에도, 통섭적 학문으로서 도시설계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션과 최근 도시설계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학자의 박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예우 학생기자  
kimyeru@hanmail.net

· 학부기고 ·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과자건축전시를 마치며...

장주영 학생기자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나의 대학 생활 중 마지막은 졸업 작품이 아닌 과자건축으로 마친 것 같다. 첫 시작은 어느덧 5개월 전이 6월 중순쯤 우리대학 건축학과 이재홍 교수께서 부르셔서 가보니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다.

11월에 있을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할 수 있는 과자 건축을 비롯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중간고사 기간이었지만 꼬박 밤을 새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예산과 맞물리며 처음 기획했던 규모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며 당달야 예산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9월 달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였을 때는 현대건축과 전통건축 그리고 중이건축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졸업 작품 준비로 인하여 우선 전통건축으로 선정된 청령 학교를 동아리 후배들과 실측하고 도면을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말 작업이 완성된 후 졸업 작품으로 인하여 잠시 멈추다가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예산이 지급되어 본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남은 기간은 2주, 나에게도 졸업 작품 이후, 기사 시험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었지만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재료 찾기부터 시작하였다.

과자 건축은 재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한 건축물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과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던 것이다.

각자 생각했던 재료들로 최대한 여러 종류의 과자를 사서 각 부분을 만들어보고 비교해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았다. 과자건축을 만드는 동안 마트만 4~5군대를 넘게 돌아다녔던 것 같다.

예산한 결과였지만 만들다가 부서지고 완성된 것도 하나둘씩 부서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과자 건축은 전시를 이틀 앞두고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반이 마지막 과제였다.

쉽게 부서질 수 있었어 조심히 운반하였지만 출발하기 전부터 차량에 실어 나르다가 시뮬라 나기 완전 파손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광주까지 운반하였고 도착 후 보니 이층 중에 조심히 운전을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몇 군데가 더 파손되어 있었다. 저녁에 도착하여 파손된 부분을 다시 만들었고 그렇게 전시를 할 수 있었다.

전시 첫날 후배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오후에 시험을 치루야 했던 터라 한 두시간만에 다시 학교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후 봉사활동으로 참여한 동아리 후배들에게 분유기 등을 전달 받았고 자꾸 파손된 부분이 생겨 전시장에서도 보수를 여러 번 하였다고 들었다. 다행히 반응이 좋았고...

첫 기획부터 전시까지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대학 이재홍 교수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관계자 분들, 그리고 제 일고생이 많았던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DH동아리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

· 학부기고 ·

### '걸림돌'과 '디딤돌'

정세영 학생기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살다보면 디딤돌 같은 존재와 걸림돌 같은 존재가 많이 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가?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모난 돌이 넘어지고 말았다. '아 내가 이런 돌 위에 넘어지다니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런데 바로 앞에 거센 강물이 몰아치고 있었다. '징검다리'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마지막 '돌' 하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그네는 걸림돌 하나를 마지막 '돌'로 써서 건너게 되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인 '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인가 아닌 '걸림돌' 같은 존재인가? 이 사회에 태어나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나 '디딤돌'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지만,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취업에 성공한 후배 한명이 있었다. 그 후배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 같은 친구가 있었다. 그 후배는 자기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듯 싶다.

매번 시험기간이 되거나 과제제출 기간을 앞두고 후배는 그 친한 친구와 거의 단절하며 학업에만 정진하였다. 그렇게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3~4년간을 지내왔고 그 후배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졸업 즉시 취업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다. 자기가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친구가 결국은 자신의 '디딤돌'이 된 것이다. 그 친구를 통해 경쟁자를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처절한 생존논리를 스스로 느끼고 깨우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지금이라도 '디딤돌'과 '걸림돌' 같은 존재가 주위에 있는지 꼭 한번 둘러보길 바란다.

## 신영은 건축사와 승효상 건축사 협업 작품 광주에 들어서다

- 지난 11월 14일 광주비엔날레 행정지원센터 '제문헌(提文軒)' 입주식 가져



지난 11월 14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광주비엔날레 지원센터 야외무대에서 광주시 강운태 시장과 승효상 건축사, 본지 편집위원 신영은 건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 지원센터 제문헌(提文軒) 입주식이 열렸다.

모 건축전문가는 "제문헌은 건물에 갖는 고도의 시각적 힘과 아름다운 그리고 사무실 용도 건축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비엔날레 전시관과 자연농지인 용봉체의 경계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외벽이 갖는 갈색의 아름다움과 대형 스크린을 연성케 하는 벽체 모양의 전면 파사드(Facade)가 돋보이는 독특한 건축예술이다"고 말했다.

이 건축작품은 북구 용봉동 현 비엔날레 전시관과 용봉체 사이에 부지면적 1,860㎡, 건축면적 2,647㎡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원과 시비 49억 원을 들어 2010년 4월에 착공해 2011년 9월 완공하였다.

'제문헌'은 승효상 건축사가 고심 끝에 설정한 이름으로 '문화를 제안하고 인도하는 집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쓴 모든 이의 기억을 담는 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 광주시 도시재생과 안용훈 사무관 시정 유공 표창 받아

-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주택 제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공로 인정



지난 12월 1일 광주시 정례조회에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안용훈 사무관이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주택 제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국비 68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저소득층 보금자리 제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정 유공표창을 받았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내년 3월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총 1200호 건립에 사업비 804억원(국비 683억원, 시비 121억원)이 투입된다.

## 광주시 제4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다.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 강연



광주시가 지난 11월 2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건축사를 비롯한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제4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광주시는 올해 초 시민중심의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011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계획하였으며, 지난 10월 25일에도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아남씨를 초청하여 '새로운 충격,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다.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연 후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고 참석자들과 토론도 이어졌다.

## (사)광주건단협, 2011 도시건축 심포지엄 개최하다

- 영암 영산재와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등 한옥 건축물 답사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2011 도시건축 심포지엄이 지난 11월 30일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건축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건축물 탐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사, 일반인, 학생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지역 최초 한옥 호텔인 영암 영산재와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답사에 이어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에서 '한옥건축의 현대적 해석'이란 주제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조영귀 팀장의 전통건축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날 답사에 참가한 최승 학생(광주 삼무고)은 "건축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건축물 탐방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은 "이번 건축물 답사 이후, 12월 중 도시건축 심포지엄 강연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4일간 3만 5천여명 다녀가, 어린이 체험교실 등 참여행사에 시민, 학생 즐겨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에 광주는 물론 국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왼쪽부터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강남구 회장, 일본건축가협회 후쿠오카의 가쿠모우 고우타 회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심상본 대표 회장,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 노르웨이 날프 람스타드 건축사,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천득명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창을 부회장.

▶이번 문화제 전야 행사로 열린 건축인의 밤에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이 참석하여 제15회 광주건축상 입상자들에게 심패를 직접 수여하고 있다. 이날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는 광주건축상 시상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열린 도시재생 전국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도 강운태 시장이 직접 시상하였다.



▶이번 문화제에는 국제건축전이 라 할 만큼 수많은 해외(노르웨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건축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노르웨이 건축작품전에서는 전시된 작품들을 설계한 날프 람스타드 건축사가 광주를 직접 방문하였고, 광주시 이병록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개막식 참석자들에게 작품 설명을 해주었다.

▶지난 제7회 문화제에 비해 다양한 참여 콘텐츠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필연에 개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인을 꿈꾸는 수많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단체 관람하였으며, 사진은 전시 콘텐츠를 둘러보던 광주시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참석 인사들이 종이 만드는 건축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완성된 종이건축모형을 보고 답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어린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건축체험교실에 아이와 엄마의 손을 잡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건축리퍼블릭 만들기과 종이건축모형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과거 건축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사진 속 중심 가득한 눈망울로 건축리퍼블릭 만들기에 열중한 어린이들의 진지함이 엿보인다.



##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강정민 건축사 정 태 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 2011 전북건축사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전북 진안 고원길 1코스에서 진행, 이성업 회장 등 회원 및 가족 60여 명 참석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전북 진안 고원길 1코스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두 번째 갖는 동 행사는 이성업 회장과 회원 및 회원 가족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영모정에서 출발하여 대광수련원까지 2시간여에 걸친 걷기대회를 가졌다.

진안 고원길은 2011년 7월 30일 공식 개통한 구간으로 진안의 산세의 아름다움과 정감기는 산촌마을의 정취가 어우러진 장관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걷기대회를 마치고 뒤풀이로 진안군 백운면 노천리 소재 평창야영장에 모여 김치찌개를 안주삼아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한 달여 남은 신유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욱 화합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동 행사에 참석한 건축사 회원 및 가족들 모두 짧은 시간이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보내면서 그동안 업무에 지친 심신을 운동과 웃음을 통해 저력 노을에 맡기며 귀환하였다.

양우현 건축사기자 bh1493@chol.com

## 故김중업 건축사가 설계한 군산시민문화회관 매각

- 군산시, 군산예술의 전당 신축에 따른 재원 확보 차 결정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 故 김중업 건축사가 설계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매각이 추진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인 '군산예술의 전당'과 기능이 겹치며 신축에 따른 재원 확보 차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최근 '회관'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 초 시정조경위원회의 의결과 군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으로 매각에 나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총 대지 7천97㎡에 연건평 4천491㎡·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1989년 건립되었으며, 20년 넘게 각종 공연과 예술전시 활동 등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 향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전북지역 건축계 일각에서는 한국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사의 작품이 상업적 기업에 매각되어 헐리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주시 건축직 공무원 모임 건전화, 연탄봉사 활동 펼쳐

- 지난 12월 3일,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연탄봉사 활동



전주시청 건축직 공무원 모임 '건전화'가 지난 12월 3일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뜻깊은 이웃 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건전화' 80여명과 문명수 부시장은 전주 노송동 관내 저소득층 및 홀로 사는 노인 세대 20여 곳을 찾아 '사랑의 연탄 4천장'을 직접 배달 봉사하였다.

이번 봉사는 행복한가게에 2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전주시청 건축직 모임 80명이 회비를 납부해 연말연시 모임을 갖지 않고,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나선 것이다.

## 전주시 '한옥마을 상업시설 규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패스트푸드점 등 입점 금지, 상업시설도 순수 목조건물 형식으로...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업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지난 11월 16일 고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 일원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체인점 등의 입점을 금지하고 건립이 허용되는 상업시설도 순수 목조건물 형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또 상업시설 건물의 대지 최대면적을 기존 660㎡에서 330㎡로 축소해 건물 간 합병을 통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비주거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폭 6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하는 대지나, 8m이상 도로에 8m이상 접하는 대지는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8월 제8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주한옥마을의 상업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주전통문화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심의안을 의결하였다.

## 전남 여수건축사회 제4회 여수건축문화제

- 오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수 YMCA 생태교육관에서

전남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오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수 YMCA 생태교육관에서 '제4회 여수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여수시가 후원 및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여수지역 건축사회원 작품전을 비롯한 친환경 건축에 관한 강연회, 여수 건축인의 밤, 친환경 건축을 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여수지역 시민과 건축사 등 전남지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

행사명	일시	장소
건축인의 밤(인아행사)	12. 15 (목) 19:00	여수 포에버 워딩홀 4층
여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	12. 16 (금) ~ 17 (토)	여수 YMCA 생태교육관
여수 건축사 회원 작품전	12. 16 (금) ~ 17 (토)	여수 YMCA 생태교육관
친환경 건축에 관한 강연회	12. 16 (금) 13:30 ~ 18:30	여수 YMCA 생태교육관
친환경 건축물 답사	12. 17 (토) 09:30 ~ 12:30	여수 대명 MVL 호텔 현장

## 광주건축사회 제2기 건축사아카데미 수료식 개최한다

- 오는 12월 20일 오후 7시 열리는 여섯 번째 강의 때 진행 예정



광주건축사회가 약 3달간에 걸쳐 진행한 제2기 건축사아카데미가 오는 12월 20일 오후 7시 여섯 번째 강의를 끝으로 종강한다.

이날 강연은 대한건축사협회 회계를 전담하고 있는 천지희계 법인 활용회 회계사를 초청하여 '건축사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재무경영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가 열리는 이날 아카데미 수료자 50여명에게는 일종의 종강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김재성 사무국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작년에 비해 강의를 줄이는 대신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내실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고 평하며 "내년 제3기 건축사아카데미에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광속군 전담 기자 kst4830710@hanmail.net

## 전라북도 예비 건축인들의 활약(活躍) 돋보인다

- 원광대, 전북대 건축학과 학생들 각 공모전과 봉사활동에서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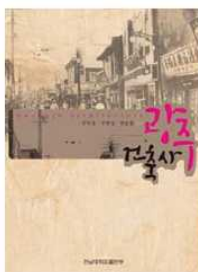
전북지역 건축전공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초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를 비롯한 한은성, 김지훈 학생 외 10여 명은 BIM Design Awards 2011에서 개인부문 최고상과 학생부문 우수상 및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다. BIM Design Awards 2011'은 한국 건설건축 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을 위해 건축 설계분야인 BIM 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또한 동대학 건축학과 김은영 학생 등 11명은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에서 농림식품부장관상과 전북도지사상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장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김희성, 이양석, 한재경 학생은 포스코 주관으로 최근 막을 내린 대학생 건축설계 공모전에서 거대한 구조물에 움직임을 더한 'MSG: Moving Steel Park' 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철을 이용해 높아진 건물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움직임을 부여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것이다.

## 광주건축의 모든 것 '광주건축사(史)' 출간되다

- 전남대 건축학부 천득염, 한승훈 교수, 호남대 환경이공대 신태양 교수 공저



광주의 건축사(史)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건축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와 한승훈 교수, 호남대학교 환경이공대학 신태양 교수이다. 내용은 고대사회부터 조선시대, 목포항 개항,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산업화, 현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생성된 광주지역의 건축에 대해 총망라했다.

특히 광주의 어제와 오늘, 광주지역의 일제강점기 건축, 광주지역의 해방이후 건축, 광주지역의 2000년대 건축까지 총 4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근대 100년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지역 건축 문화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2000년 이래 2010년까지 광주시 내에 건물 중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 38점이 수록되어있다.

## 광주·전남·전북지역 12월 지역축제 안내

- 2011. 12. 09(금) ~ 2012. 01. 29 (일) 제9회 보성차밭 및 축제 - 전남 보성 북대원 및 다양한 전년대 일원
- 2011. 12. 31(토) ~ 2012. 01. 01(일) 여수 힘일람 일출제 - 전남 여수 돌산읍 임포마을(항일암)
- 2012. 01. 06(금) ~ 2012. 02. 25 (토) 2012 바래봉 눈꽃축제 - 전북 남원시 바래봉, 허브밸리

## 전남건축사회, 2011 건축인의 밤 개최

- 본협회 강석익 회장과, 전남도 행정지원국 이승욱 국장 등 내외빈 참석



지난 11월 24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에코그라드 관광호텔 3층 연회장에서 전남건축사회원 130여명과 도·시·군 공무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전남건축인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작년부터 전남건축인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추진된 건축인의 밤 행사에 본협회 강석익 회장과, 이창을 부회장, 서울건축사회 강석후 회장, 전남도 행정지원국 이승욱 국장, 순천시 서북

남 부시장, 순천대 이석배 교수 등 내외빈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석익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남지역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신 전남건축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오늘 이 행사가 전남건축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주도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인의 밤 만찬 행사에 앞서 '한옥건축 이야기'란 주제로 (주)삼진 건축사사무소 이봉수 건축사의 강연과 '웃음은 돈이다'라는 주제로 개근 김희래 씨의 강연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 광주 건축계 동정

**\* 폐업**  
- 박정환 건축사 / (주)영산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신가동 972-3

**\* 변경 (소재지 변경)**  
- 박신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림 / 광주 서구 능성동 331-32 (2층)  
- 엄형곤 건축사 / 시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신안동 491-1 중도다이아빌 413호  
- 강성호 건축사 / 국일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능성동 331-32 (2층)

**\* 결혼**  
- 김유지 건축사 / (주)유지 건축사사무소 / 장남 - 11월 26일 (토)

**\* 부고**  
- 선재규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2월 3일 (토)  
- 심상재 건축사 / (주)중원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2월 5일 (월)

### 전북 건축계 동정

**\* 입회**  
- 유영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무한건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1-3  
- 이영민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75-9

**\* 전입**  
- 고진국 건축사 / ㈜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2-2  
- 경기도에서 전입

###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박병엽 건축사 /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려리 1735-1  
- 김재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휘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06-1

**\* 재입회**  
- 한갑수 건축사 / 우리건축사사무소 한건축 / 전남 순천시 왕궁길 10

**\* 변경 (소재지 변경)**  
- 박미진 건축사 / 해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140  
- 정집문 건축사 / 더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2

**\* 결혼**  
- 강인수 건축사 / 세원 건축사사무소 / 말녀 - 12월 3일 (토)

**\* 부고**  
- 최상재 건축사 / 최상재 건축사사무소 / 본인사망 - 11월 27일 (일)

**\* 변경 (소재지 변경)**  
- 이정복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필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54-13

**\* 부고**  
- 반진호 건축사 /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1월 11일 (금)

- 장근홍 건축사 / 실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25일 (금)  
- 문형국 건축사 / 문형국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장모상 - 12월 4일 (일)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0호 2011-11-3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10755호 2011.5.30.공포, 12.1시행령에 따라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406호 2011-11-30)

##### 1. 제정이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1.5.30.공포, 12.1시행령)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인증 신청절차, 인증서의 발급, 예비인증의 신청 및 인증 후 사후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능형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3조)
- 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절차 및 처리기한의 설정(안 제6조)
- 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서의 발급 등(안 제8조제7항)
- 라. 예비인증의 신청 등(안 제11조)
- 마. 지능형건축물 인증 후 사후관리(안 제12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2011-11-3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0755호, 2011.5.30.공포, 12.1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열손실 방지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령 제2011-967호, 2011-10-21)

##### 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하역주차 수요 충족과 하역주차구역 추가 설치를 해소시켜 사설수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 설치 허용(안 제1조의2)
- 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구역 확보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입법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의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인증 설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개정·고시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http://nicelawyer.co.kr) / 윤변호사. 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유문근, 이상엽  
편집인 박홍근  
편집장 김승근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현,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전경훈, 이광영, 박상유, 정관성,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영  
새롭게 변모할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좋은 집이, 좋은 공원이 되게는  
이세 시대가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우리의 굳어있는 역사를  
살아나게 하는 계기가 될 바란다."  
- 이효린 교수의 기획 필고 본문 중 -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100만 원  
알파시스벤처(주) 50만 원  
(주)슈퍼도리 50만 원  
대한건축사협회 50만 원  
국진신문개발(주) 50만 원  
광남종합목재산업(주) 50만 원  
광주건축사신문 50만 원  
16개 시·도건축사회 및 회원 일동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친화/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목재만  
평/기타 (기행문, 시, 문예작품, 미담, 학우 유희, 교수 일문, 인사이드 등 회원들)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s@empal.com](mailto:gjks@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나는 대한민국 주부로소이다

김영란 주부  
광주 수원동

나는 주부다. 그것도 이제 막 2달된 인턴주부!  
주부를 회사 직급 체계로 구분하면 이렇다.

- 결혼 1일부터 6개월까지는 인턴주부!
- 결혼 6개월부터 2년까지는 평사원주부!
- 결혼 2년부터 5년까지는 계장주부!
- 결혼 5년부터 10년까지는 대리주부!
- 결혼 10년부터 15년까지는 과장주부!
- 결혼 15년부터 20년까지는 부장주부!
- 결혼 20년부터 25년까지는 본부장주부!
- 결혼 25년부터 30년까지는 사장주부!
- 결혼 30년부터는 끝까지 회장주부!

아 까마득하다.

나의 일과는 이렇다. 새벽 6시 남편보다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 집안정리를 하고 아침밥을 차린다. 남편 출근 배웅하고 나면 설거지와 함께 집안청소를 맡끔하게 한다. 그러면 벌써 점심시간이 다되어가고 아침에 남편이 먹었던 국과 반찬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전날에 입었던 남편 와이셔츠와 속옷 그리고 세탁기로 빨지 못하는 여러가지 옷들을 손빨래 한다. 그러다 보면 오후 3시쯤... 이제 저녁거리를 장만하러 집 앞 마켓으로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사고 저녁을 준비하다보면 7시가 다된다. 남편과 함께 저녁밥을 먹고 일일드라마를 보면 9시, 내일 남편이 출근할 때 입고갈 옷을 다리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녁드라마를 보면 11시 30분. 꿈나라로 갔다가 다시 맨 처음으로 간다.

지금까지 인턴주부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과를 소개했다.

역시 결혼은 현실인가보다. 결혼 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이 짓거리(?)를 앞으로 30년이나 해야 된다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 30년간 인내하며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보내면 어디회사 회장님처럼 신랑이 너를 떠맡을 거라고... 남자는 나이 먹고 퇴직해서 갈 곳 없으면 자연스레 여자한테 의지한다고...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우리 주부들도 힘들게 돈 벌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발 부인들에게 따뜻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러다 나이 드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으며 나와 똑같은 일과를 대수롭지 않게 보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주부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모든 대한민국 남편들은 다 거기서 거기 같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한 동물들... 다행히 남성부가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안하겠지만, 남편한테 조금은 찔린 건 하다.

끝으로 남편에게... 여봉~! 오늘 맛있는 저녁 해줄게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부들이여, 회장주부가 되는 그날까지 영원하라~!



## 罰

김민주 과장  
광주건축사회

大自然  
바람, 물, 태양이 만들어낸 작품들  
곳곳마다 펼쳐지는 경관  
아~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가  
마음의 안식처이자 경이로운 신의 선물

불씨를 발견함이 시작이었을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고 무엇인가를 발명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해 감은  
더 큰 문명의 편리를 안겨주지 않았는가  
책, 전기, 자동차  
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가

쓰나미, 대지진, 온난화  
지구가 화난 것인가, 우리의 우둔함인가  
자연의 섭리를 우뚝한 손 빛은  
실로 엄청나지 않은가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오랴  
때론 목숨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한없이 낙약해질 뿐이구나



## 건축을 묻다

서현 지음 / 효형출판

이광영

리가 건축사사무소



이 책의 첫 물음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무엇인가의 대상으로 인생과 건축을 얘기한다. 건축과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발견한 마지막 문장은 건축은 예술인가 다.

즉, 예술을 얘기하

기에 앞서 인생과 건축의 의미를 묻고자 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전반부를 철학적 예술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다.

책을 읽는 도중에 건축을 전공한 비평가의 입장에서의 예술의 의미를 찾는 것 보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예술을 논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과감히 책을 덮고 철학저서를 탐독하게 되었다. 그것이 훨씬 더 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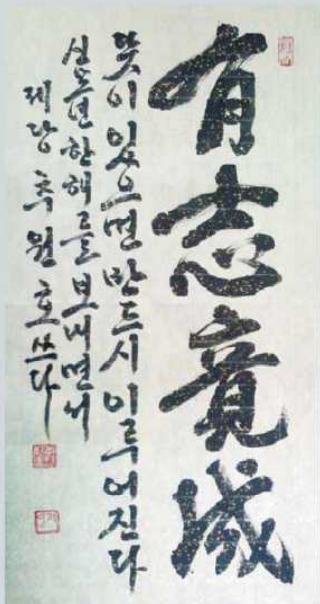
하지만, 이 책의 전반부에 걸쳐서 철학으로서 예술에 대한 논의는 저자의 인문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앞에서 철학으로서 예술의 정의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학에 대한 이해를 서술하고 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철학 사상은 동양에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서양 철학만으로 예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축과 결부시켰냐는 점이다. 물론 동양 철학도 일부 서술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 부연설명을 위한 인용이다.

과연 내가 '건축은 예술인가'의 질문에 이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책장 하나 하나를 넘긴다.

하지만, 이책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독자에게 맡긴다.

건축에 대한 깊이를 생각하게 하는 이 책은 건축은 왜 예술이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고, 예술로서의 건축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확신한다.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분을 올 한해 유지경성한  
한 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림(濟陵) 주원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전북작



백양사(수석선사만암강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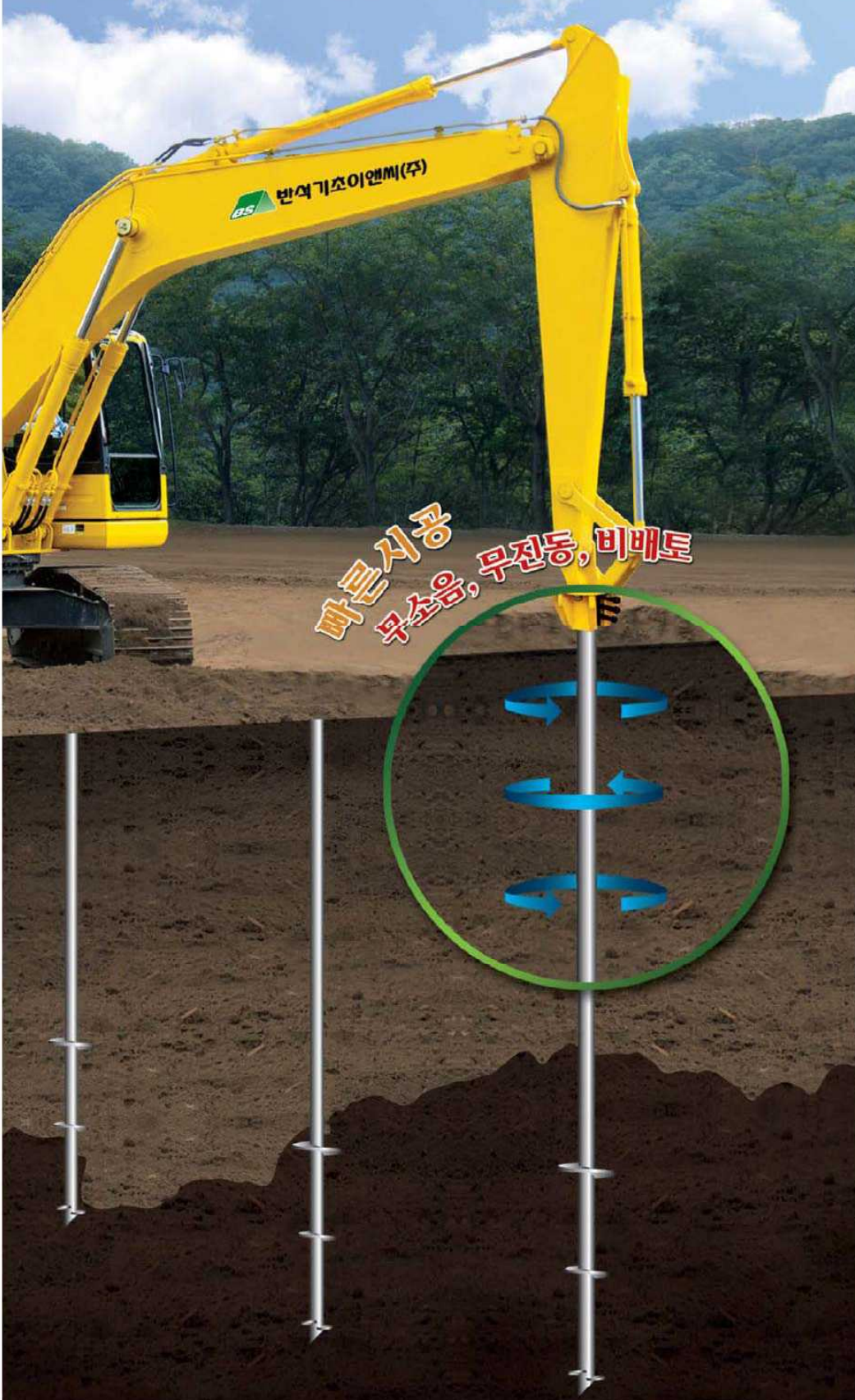
백양사 기는길 중간에 위치 하고있는 전신관 말마당 강나루  
풍사가 주렁주렁 열려있네.

- 장성군 사삼면 금계리 어고마을

촬영자: 김찬은 (일반인)작

# ROTARY PILE 공법

나선형 회전운동으로 지반에 삽입하여 주변 마찰과 선단지지함으로써  
압축과 인장력에 강한 지지력을 최대화한 친환경 파일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

## 시공사례



부천고강동 공영차고지



군산 한산공장



군산 OCI공장



피주 한양아파트



속초 한하리조트

# 광주 하우징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광주 하우징 2.5산업 활성화 사업단은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확실한 사업화를 추진하며, 업체와의 Win-Win 관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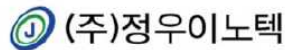
사업아이템\_ LED조명, 에너지세이빙

- LED 조명  
 1) 실외조명 : LED가로등, LED보안등, LED공원등, LED가로등 모듈  
 2) 실내조명 : LED평판조명, LED환등조명  
 3) LED 조명조각 : LED투광기(자동차, 배너, 미디어파사드, 사공 및 설계)  
 LED가로등, 정원조명, 평판조명 등을 제조 판매하는 LED조명 전문기업으로써 작곡적 R&D투자로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 확보 20여년 광주광역시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사업아이템\_ 방화문/후레임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뛰어난 기술로써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온 결과, 국내시장과 일본시장에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아이템\_ 싱크대절수기

10년동안의 축적된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전금구용 절수장치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수전금구용 절수장치 분야에서는 국내 및 세계제일의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업아이템\_ 소화기구 제조 및 판매

자동식소화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수동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제조하여 특판납품 및 유통을 하고 있으며, 부설기술연구소에서 첨단 소화기구 및 소화용품 등 개발에 주력하는 소화기기 전문업체입니다.



사업아이템\_ 태양광충전장치, 자동제어 시스템

친환경 첨단 반도체 소재인 LED를 이용하여 건축물, 교량, 공원, 분수, 조형물 등의 경관조명과 유/무선 자동제어 시스템, 경관조명디자인을 설계, 시공하는 LED전문기업입니다.



사업아이템\_ 대기전력차단요금 절감기 파워메니저

다수의 홈 네트워크 및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파워메니저라는 다기능 첨단 대기전력 차단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파워메니저는 전자제품의 실시간 소비전력을 확인 및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절전 시스템입니다.



사업아이템\_ 렌지후드

1995년 7월 3일 창업, 주업종으로는 렌지후드, 열교환형 환기장치이다. KS, ISO9001, CE인증, INNOBIZ, 기업은행 유망중소기업선정 되었으며 실내공기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인류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사업아이템\_ 방송장치와 보안용 카메라

각 중 방송장치와 보안용 카메라를 생산하며, 현재는 LED전광판, 전기 전원분배기를 생산해서 관공서, 아파트, 산업단지에서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아이템\_ 창호

(주)이노탑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창호업체로서 고효율 및 친환경 창호인 현우창, 시스템창, 학교창, 커튼월 등 A/L 및 목재창호를 개발하여 생산·시공하고 있으며, 고효율기재인증서 및 다수의 특허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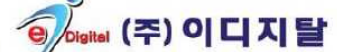


(주)일광솔라에너지는 국내외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시공,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태양광 전문기업입니다. 태양광 추적시스템 트래커(고정식, 고정기반식, 수평단축, 경사단축, 양축)와 계통 연계반, 태양광발전 접속반, 액츄에이터 제작을 시작으로 자체 시스템을 제작/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업아이템\_ 정보통신

진성정보기술(주)는 유선, 무선, 광, 전송사공 및 네트워크장비 제조를 주사업으로 동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정보통신회사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 내의 공장에 PCB 조립장비인 SMT 4개 라인을 운영하여 당사 또는 타사의 PCB를 조립하는 임가공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당사의 주요제품으로 2008년부터 형광등 대체형 직관형 LED 램프, 공공기관 등의 천정용 평판형 LED 램프, LED bulb, MR16, 다운라이트 등을 제조하고 있다.

하우징 산업의 미래, 우리가 열겠습니다!